

호주의 공공정보 관리 동향과 시사점: Digital Continuity Plan을 중심으로

문 정 옥*

1. 개요

스마트 기기의 보급 및 확산으로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위한 공공정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정국환 외, 2011). 공공영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정보 기반의 정보공유가 정보화의 주요 쟁점이었으며, 최근에는 공공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공공정보 공유 및 활용이 늘어가고 있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2011)에 따르면, 민간 기업은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연간 약 6,800억 원의 매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정보 활용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중요한 이슈임은 물론, 정보공유와 서비스 연계가 실현되는 전자정부 최고 수준인 통합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공공정보가 활발히 이용되고 그 정확성과 신뢰성, 그리고 보안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 of Australia)은 지난 3월 정부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연구실 부연구위원, (02)570-4366, jwmoon@kisdi.re.kr

은 ‘디지털 지속성 계획(Digital Continuity Plan)’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지속성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에 따르면 디지털 지속성을 통해 공공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정보들은 합리적 절차에 의해 폐기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지속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으며, 정보 속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디지털 지속성은 뉴질랜드와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개념화되어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지난 2005년 ‘공공기록법(Public Records Act)’을 제정하여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디지털 관리를 실행하고 있다(Warham, 2008). 또한 영국은 2011년 ‘디지털 지속성 관리(Managing Digital Continuity)’ 계획의 발표 등을 통해 국가의 공공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National Archive of UK, 2011a; 2011b).

이에 본고에서는 정보화 선진국 중 하나인 호주¹⁾에서 지난 3월에 발표한 ‘Digital Continuity Plan’을 통해 호주의 공공정보 관리 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Digital Continuity Plan’의 주요 내용

(1) 디지털 지속성의 원칙과 성과

호주의 디지털 지속성 계획안은 디지털 방식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종이 문서 형식의 정보에서 디지털 형식에서의 정보 전환을 의미한다. 호주의 디지털 지속성 계획은 다음의 6대 원칙을 기반으로 디지털 정보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첫째, 정보자원으로서의 디지털 정보의 가치를 인

1) 2012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호주는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 192개국 중 12위를, 온라인 참여지수에서 5위를 차지하였다.

식하고, 그에 맞는 정보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정보 거버넌스는 역할, 책임성, 분업 등의 측면에서 정부 거버넌스와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정보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디지털 정보는 가독성이 높고, 접근과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다섯째, 디지털 정보는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여섯째, 디지털 정보는 그 필요성이 유지되는 한 관리, 보호, 보존되어야 한다.

또한 호주 정부는 디지털 지속성 계획의 실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정보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 및 효과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디지털 정보관리를 통해 인력, 프로세스, 기술 등이 연계되어 효과적인 정보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의 목적에 맞는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계획안은 디지털 지속성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정부기관들이 기관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모색하여 적절한 방법론을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호주의 디지털 지속성 계획은 업무 측면, 인력-프로세스-기술 측면, 정보 측면의 3가지 방향에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에서는 각각의 측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2) 디지털 지속성 계획안의 주요 내용

호주 정부의 계획안은 업무 측면에서 디지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일상적인 정보 점검²⁾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정보를 점검하는 이유는 누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정보를 활용할 것인지, 정보의 흐름이 내부적인 것인지 또는 외부적인 것인지, 활용 목적은 무엇인지 등에 따라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계획안은 정보점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첫

2) 정보점검(Information Review)은 소속 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하고, 보유하는지를 확인하고, 책임성, 활용기회, 의무사항 준수 정도, 비용, 위험관리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째, 성과가 높은 분야의 정보 분석을 통해 업무 성과를 개선한다. 둘째, 정부, 국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높은 질의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정보 기반의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넷째, 빠른 응대가 가능하도록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 중복되어 있는 정보를 삭제한다. 여섯째,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의 접근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현한다.

또한 계획안은 업무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책임성을 들고 있다. 정보를 생산, 보유, 관리함에 있어서 책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책임성에는 ① 정보의 생성, 보유, 관리, 폐기, ② 정보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③ 정보의 활용, ④ 정보의 공개와 공유 등이 모두 포함된다.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어떻게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지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정보는 기관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과 정책과정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됨으로써 그 가치가 구현될 수 있으므로 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를 통해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계획안은 주장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디지털 지속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의 구성요소인 인력, 업무 프로세스, 기술 등의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선, 인력 측면에서 디지털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관리자의 역할이 필요하며, 정보에의 접근 통제, 정보의 질 관리, 정보의 표준화 등을 위해서는 정보관리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보 이용자의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디지털 정보관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 이용의 분명한 절차를 명시하며, 전문적인 디지털 정보관리자가 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 관리, 이메일 관리, 정보보안,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유리 관리 등의 업무를 처음 맡게 되는 공무원들에 대해 초기 교육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정보검색, 정보활용, 정보관리를 위해 담당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정보관리 책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업무 프로세스적 측면에서 디지털 지속성을 통한 업무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EA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라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 틀은 정보 이용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 측면에서의 업무 시스템은 디지털 정보를 생성하고, 보유하며,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다양한 정보관리의 요구조건들을 보다 단순하게 재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정보관리 틀은 정보관리의 기본방향과 절차, 색인과 분류, 분류 메커니즘, 인허가 및 통제 메커니즘, 체크리스트 등의 표준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틀은 정보관리 특성에 맞추어 특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안은 또한 디지털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정보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디지털 정보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함과 동시에 특정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언제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고려가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메타데이터의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메타데이터는 디지털 정보들이 생산되고, 재활용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과거의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현재의 소프트웨어 등에 맞지 않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정보 관리에서의 정보 포맷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식의 정보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등에 대한 방안들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관리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정부기관이 합병 또는 분리된 경우, 정보 책임성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새로운 IT 기술이 도입된 경우에 디지털 정보가 취약해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해 호주 국가기록원은 정부 조직개편에 대비한 디지털 정보관리 가이드라인과 조직개편 등 조직구조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의 정보보안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계획안에는 더 이상 필요 가치가 없어진 디지털 정보의 조치 방안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의 존속 또는 폐기는 디지털 정보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호주의 경우 정부기록관리법에 의해 정보의 유지 또는 폐기를 결정하는데, 복사되었거나 중요하지 않은 기록들은 폐기 대상이 되며, 짧은 기간으로 존속 여부가 명시된 정보들도 파기된다.

3. 결 어

본고에서는 호주 정부의 ‘디지털 지속성 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호주 정부는 본 계획을 통해 정부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의 디지털화는 물론, 디지털 방식의 정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호주 정부는 디지털 지속성 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디지털 정보 활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과정을 확립한다. 둘째, 정부, 이해관계자, 관련 조직들의 책임성을 높인다. 셋째, 업무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넷째, 정보의 저장비용 등을 절감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한다.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사회에서 스마트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공정보 활용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공공영역은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처럼 공공정보의 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지속성의 6대 원칙을 보면 정보에의 접근가능성과 이용가능성, 정확성과 보안성, 그리고 정부부처 간 연계 즉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보화의 최종 목표인 시스템 연계와 정보공유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이다.

이러한 추세는 뉴질랜드와 영국의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뉴질랜드는 2009년에 디지털 지속성을 위한 디지털 정보관리 방안인 ‘Digital Continuity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Archives New Zealand, 2009). 뉴질랜드 정부는 계획안에서 디지털 정보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공정보는 생성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부처 간 연계, 접근 용이성, 정보 책임성, 효율적인 정보 거버넌스 등이 확립되어야 함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영국은 작년에 'Managing Digital Continuity'를 발표하고, 디지털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4가지 단계, 즉, 실행계획 수립 단계, 디지털 지속성을 위한 환경 정의 단계, 디지털 지속성에 따른 위험 평가 및 관리 단계, 디지털 지속성 유지 단계에 걸쳐 각 단계별 필요한 구체적 실천 계획들을 제시했다(National Archive of UK, 2011a; 2011b). 본고에서 살펴본 호주의 디지털 지속성 계획은 앞서 발표한 영국의 계획안을 참고하여 용어와 개념 등을 정의하였는데, 양국 모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방식에 의한 디지털 정보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의 공공정보 관리에 있어서의 주된 공통점은 정보의 정확성 및 접근성 제고, 정책 활용을 위한 부처 간 정보 연계 확립, 형식-체계 등 정보 속성의 표준화이다. 즉, 효율적인 디지털 정보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완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공공정보 공유는 수요기관이 원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하나의 대장(주민등록 등본, 건축 대장 등)을 전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에 따른 비효율과 정보유출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성 때문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향후 공공정보의 관리는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단일정보(속성정보)만을 여러 가지 대장 또는 정부의 정보 DB에서 추출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요구되지 않은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됨으로써 야기되는 정보 유출 사고의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주 정부에서 제시한 계획들과 같은 효율적인 공공정보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형식으로 보존되어 있는 정보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전환하는 작업, 부처 간 연계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의 완비,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접근성 제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정국환·문정욱·왕재선 (2011), “정보화 선진화를 위한 공공-민간 협업 촉진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12-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1), 『2011 데이터베이스 백서』.

Archives New Zealand (2009). “Digital Continuity Action Plan Introductory Brochure”. New Zealand Government.

National Archive of Australia (2012). “Digital Continuity Plan”. Australian Government.

National Archive of UK (2011a). “Managing Digital Continuity”. U.K. Government.

_____ (2011b). “Understanding Digital Continuity”. U.K. Government.

Warham, Evelyn (2008). “A View from the Other Side: Digital Continuity in New Zealand: Standards, Services and Solutions”. presentation in DLM Forum 2008.

www.naa.gov.au

www.agimo.gov.au

www.nationalarchives.gov.uk

www.archives.govt.nz